

고린도후서 12-13장

고린도후서 12장을 펴십시오.

12장 1절은 헬라 원어의 구성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영어로 잘 번역되지 않지만 역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1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근본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로 자랑하게 만드는데, 사실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장들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에 그를 뒤따라 들어왔던 방해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개척지로 들어가서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매우 든든한 교회로 세워놓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한 2년간 있으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 거짓 선생들이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과 그가 전하였던 은혜의 복음에 도전하면서 그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것들을 찾고 있었고, 율법 아래로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그것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입장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의 소명을 변호하고 있으며, 또 저들에게 전한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군으로서 그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고통과, 위험과, 개인적인 형벌등의 어려움들을 포함했습니다. 매맞음과, 돌로 맞았으며, 감옥에 갇힘과, 배의 파선,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었든지 그가 사역했던 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영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사도로서 사역의 외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사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인줄 알지만 너희가 나로 하여금 강제로 자랑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그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계시들입니다. 그는 매우 놀라운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그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십 사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를 쓰기 약 14년 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몸을 성읍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의 동역자들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매우 용감한 믿음의 군사였었기에 그들은 그를 둘러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둘러서서 울고 있을 때, 갑자기 그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다시 성읍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아직 나의 메시지를 끝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내가 몸 밖으로 나가는 경험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간엔 그는 셋째 하늘에 끌려올라 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세 개의 하늘을 말합니다. 그 하나는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의 하늘을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경계가 없는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놓으신 천체의 하늘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우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늘들에 있는 그의 보좌 곧,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하시는 하늘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개의 하늘, 즉 대기층의 하늘과, 천체의 하늘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을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은 일곱 하늘에 대해 말했습니다. 몰몬교인들도 일곱 하늘을 택하여서는 하늘의 일곱 단계와 영광의 등급 등에 대해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 개를 언급합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로 끌려올라갔습니다. 그는 그곳을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낙원으로 끌려올라갔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다시 말하면, 그는 말로 묘사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현대 철학에서 그들은 궁극적인 체험을 갖는 가능성에 대해 말합니다. 이 궁극적인 체험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도 모릅니다. 이런 궁극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들은 모릅니다. 이 궁극적인 체험이 갖고 있는 문제는 말로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나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일 어젯밤 나는 궁극적인 체험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에 대해 말해 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 그들은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이 궁극적인 체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묘사할 말이 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점에서 이 궁극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인 낙원으로 이 끌려올라갔고 거기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들을 들었는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범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기서 경험했던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 아직 고안되지 않았거나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묘사하려고 하는 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로 묘사하려하면 실제 경험보다도 훨씬 저하 시키고 감소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지난번 침례식 때에 저녁놀이 진 하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수평선 위에 해가 저물면서 하늘은 아름다운 분홍빛과 주홍빛 등으로 물들었습니다. 색깔들이 바다 물을 가로지르면서 반사되었고 종려나무들은 항만의 다른 쪽 하늘에 긴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만일 앞을 못 보는 장님에게 당신은 이 광경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잔잔한 물결과 하늘의 여러 가지 색깔들과 구름 등을 장님에게 어떻게 그것을 묘사하겠습니까? 당신이 말하기를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분홍빛이었다고 말한다고 합시다. 분홍빛? 그것은 주홍빛이기도 했습니다. 주홍빛? 당신이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광경의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장님으로 태어났던 어린 여자아이에 대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여섯 살이 되었을 때 의사에게 검진을 받았고, 그 의사는 수술로서 그 여자아이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점까지 그 여자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파란 하늘과 솜털과 같은 구름 그리고 초록색 잔디와 각 가지 색깔의 꽃 등을 설명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려 했고, 그 아이에게 말로 그림을 색칠하려고 아이와 매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흥분된 기대를 갖고 수술을 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붕대를

풀러갔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밝은 빛으로 아이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조금씩 붕대를 풀러 빛이 눈 신경에 조금씩 달게 하여 마지막 붕대를 풀었을 때에 큰 충격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붕대를 푸를 날이 왔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붕대가 다 풀려지자 아이는 처음으로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처음으로 엄마가 묘사했던 방을 보았으며 방 앞에 있는 큰 창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으로 달려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파란 하늘과, 솜털 구름과, 아이들이 노는 것과, 초록색 잔디와, 예쁜 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는 다시 엄마에게로 달려와서는 훌쩍이며 울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말하기를, 왜 나에게 그것들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자 했으나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천국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실제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천국은 아름다운 곳, 영광과 은혜가 총만한 곳. 나는 나의 구세주의 얼굴 보기를 원하네. 천국은 아름다운 곳. 나는 거기에 가기를 원하네.” 라는 찬양을 부르곤 했습니다.

진실로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경험에 대해 말을 하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가 죽었는지 아니면 살아있었는지 나는 확실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의 동역자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몰랐고, 단지 내가 아는 것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 것이라. 나는 낙원으로 들려 올라갔었고 거기서 영광스러운 것들을 들었노라.

5 내가 이런 사람을 (그것은 이 영광스러운 계시와 영광스러운 체험을 한 사람)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6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것들을 묘사하려고 하지 아니하노라. 그 첫째 이유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을 일종의 영적 대좌에 올려놓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빌리 그레함 목사 등 이런 사람들을 일종의 영적 대좌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와, 그들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분들이다! 우리는 대체로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실제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거기에는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우상들은 진흙으로 된 발을 가지고 있다는 말처럼, 그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대좌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텔레비전은 사람들을 “스타”의 위치로 올려놓는 어떤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텔레비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실제 보다도 더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들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되고, 그들이 진흙의 발을 가졌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는 너무나 황당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고 그만 두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실제 나 보다 더 높이, 더 좋게 생각하고 또 너희가 나에 관하여 들은 것과 보는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하노라.

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놀라운 하늘의 계시를 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계시가 지극히 풍성했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개인지도 받았는데,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이방 세계에 전해야 할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의 계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극히 풍성한 계시로 인하여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교만을 갖게 되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열등하게 생각하고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높이고 그러한 대좌 위에 올려놓지 않도록, 바울은 말하기를,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가시란 단어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것은 헬라어 말로 텐트를 치는데 사용하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조그마한 장미 가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한 질병이었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어떤 추측도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알려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고 누구든 자기 생각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그것이 눈에 문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눈물이 계속 흐르게 하는 동양에서 온 질환이 있었습니다. 눈에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매우 흥했습니다. 그것은 시력에 장애가 되었고,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것으로 인해 계속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것은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갈라디아서 6장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약한 시력으로 인해 큰 글자로 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가 가졌던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10절에서 바울은 이 가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었던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이것이 가장 최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모르므로 그냥 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를 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봅니다. 그것은 그가 받은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가 자고하지 않고 그를 계속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겸손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8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 오, 그는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 주께서는 바울을 위하여 무엇이든 해 주시리라고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울은 주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9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바울이 응답하기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교제와 주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들을 갖지 않고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보다도 나는 오히려 그 가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이곳에서 부목사로 있었고, 지금은 산 호세 갈보리 채플에서 시무하고 있는 단 맥클루어 목사는 최근에 뇌졸중을 일으켰습니다. 그 뇌졸중의 압력으로 인하여 그의 오른쪽 눈의

망막이 파괴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오른쪽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어 그것에 대해 말하면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단 목사는 나에게 말하기를 그의 오른쪽 눈이 장님이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자신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너무 적극적이었고 운전을 할 때도 모든 사람을 앞질러 갔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조심해야하기 때문에 오른쪽 선에서 운전하는 자신을 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오른쪽에 있는 차들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오른쪽 차선에서 운전하는 늙은 할아버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은 너무나도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행하여 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교훈들을 경험함으로 한 쪽 눈을 잃은 것이 가치가 있으며 다시 두 눈을 갖은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육체에 가시를 갖고 있도다. 나는 주님께 이것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했노라. 그러나 나는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위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과는 결코 바꾸지 않겠노라. 나에게 주신 풍성한 계시들과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주님의 힘과 능력과 내가 주님 안에서 갖는 이 관계를 그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아니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기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고 했습니다.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데서 온전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강하다고 느끼는 곳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더 강한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 당신은 어쩔 줄을 몰라 망해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약한 부분에 당신이 약한 것을 알 때, 나는 이것을 주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당신의 약한데서 온전하게 되어 당신이 설 수 있게 하십니다. 당신이 감당해 낼 수 있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던 것을 당신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강제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그분의 능력을 받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 주님의 힘과 나의 힘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일종의 사과를 합니다. **11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너희가 나로 억지로 자랑하게 하였도다. 나는 하기를 원치 않았도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그를 도전함으로 인하여 그는 억지로 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나를 억지로 시킨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 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다른 모든 사도들에 대해 무엇을 말할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라!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보다 조금도 더 높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을 높이고 추겨 올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아무 것도 아닐지라도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떨어질 것이 없노라. 이것은 그들도 아무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같은 수준에서 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 당신은 하나님과 더 가까우시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가깝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의해 둘러 싸여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가깝습니다!

12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너희는 나를 칭찬해야 할 것이라. 너희 가운데서 본보기의 삶을 살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가져다주었던 사람이 바로 나였도다. 내가 진리를 전했노라. 나는 너희에게 나 자신을 변호해야 할 필요가 없도다.

이런 자들이 들어왔을 때, 사도의 표적들로 인해 너희들이 나를 변호했어야 하였도다. 그들이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라고 하며, 그의 사도직을 그들은 계속 비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표적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사도됨을 증거했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 의하여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셨다고 말했습니다.

13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거기서 세운 사역은 다른 교회들 보다 열등한 것이 없도다.)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나는 헌금을 걸지 않았고, 너희에게로부터 아무 것도 받지 않았도다. 이것이 잘못이라면 나를 용서하라. 성경은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의 수고는 그의 고용에 족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로부터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6: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치 못한 이 점을 용서하라! 고 했습니다.

14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 자신을 위하여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나는 너희가 갖고 있는 돈이나 지위나 그 어느 것도 구하지 않으며 나는 너희를 구할 뿐이라. 나의 사랑은 너희를 위함이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15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아주 기꺼이 쓰고 내 자신마저도 쓰리라. 나는 너희로부터 아무 것도 구하지 않노라! 이것은 오늘 날 끊임없이 기금을 위하여 간청하고 있는 많은 사역 기관들과 너무나 다른 태도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보조를 받으려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특별 기부금을 위하여 그들의 사역에 계속적으로 위급한 상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주고 내 자신까지도 주리라. 나는 너희의 돈을 구하지 않고 오직 너희를 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바울은 내가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16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고한 자가 되어 궤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속여서 붙들었다고 하는구나.

17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를 취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어서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 너희의 현금을 그에게 보내라고 하더냐?

18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를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그곳에 들어온 이런 자들이 그를 모욕하려고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강조하는 것을 주목하라! 그들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살 수 있기 위해서 너희에게 재정적으로 후원하도록 강조하도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주목하라.

베드로도 쓰기를, 너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 또는 속이는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표적은 사람들에게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속이는 말과 속이는 술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 그들은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더냐? 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19 이 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나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도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것은 너희를 세우기 위한 것이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노라. 나의 마음은 너희를 위함이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기쁨으로 섬겼고 또한 섬기리라.

20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 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나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노라! 나는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과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분열이나 험담 등을 하기를 원치 않노라.

그것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어온 독이었습니다. 그러한 논쟁적인 사람들은 단어나 의미 같은 것으로 논쟁하면서 계속적으로 문제와 다툼을 야기 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서 그러한 것들을 보기를 원치 않고 또한 너희들이 나에게서 그러한 것들을 보기를 결코 원치 아니하노라!

21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있게 사용하시므로 나를 낮추셔야만 되는 것을 원치 않노라.

초대 교회 때에 사도행전 5장 1-11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어떤 이들은 그들의 소유를 팔아 그 돈을 가지고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를 그들 자신을 위해 감추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일부를 바치면서도 위선적으로 마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바치는 것이 죄가 아니었다는 것이 성경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소유하고 있었을 동안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었느냐?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팔라고 강요하였거나 요청했느냐? 그것을 판 것으로부터의 모든 이익금을 교회에 가져오라고 누가 너희를 강요했느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아니요 입니다. 그들의 죄는 일부를 남겨 두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실제로는 얼마를 감추어 놓고서 마치 모두 다 드리는 것처럼 하는 위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실제의 그들 보다 그들을 더 높게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와, 저들을 보라. 너 저들을 보았니? 하며 그들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벌은 대단히 심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내도 같은 위선으로 말했을 때, 그녀도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가서 사람들이 엎드려져 죽음으로 인해 경허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중 몇 사람으로 인하여 애통하게 될 것이라. 나는 너희 중 몇 사람으로 인하여 애통하기를 원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수년 전 내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로 알려진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오직 하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이고 아들이며 성령이시라고 하여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애리조나 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오직 예수”신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장년 주일 성경 공부 반에서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관심을 갖게 하였고 그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위해 몇 개의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를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을 바로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복화술(腹話術)사 이셨습니까? 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나는 말씀으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논쟁하지 않으므로 그는 내가 동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는 잘못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일 성경 공부 반에서 이 “오직 예수”의 견해가 성경적이며 옳은 것이라고 여러 다른 사람들을 수궁하게 했기 때문에 그 주일 아침에 이것으로 대단한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목사님도 이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선생이 나에게 와서는, 스미스 목사님 당신도 이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가서 그들에게 알게 하여 이 일을 바로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오직 예수” 교리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분께서는 세 인격이신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세 인격, 신성의 세 신격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오, 이것은 그들에게 신에 대한 모독인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언을 하기시작 했습니다. 그는 한 관(棺)을 보았는데, 그가 그 관안을 들여다보니 내가 그 관안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두 주간 안에 회개하고 온 회중에게 “오직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나를 그 관에 실어 교회 밖으로 들고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그 다음 주 일요일 교회에 진실을 말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시간을 토요일 밤까지 주었습니다. 만일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토요일 밤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나는 “오직 예수” 교리를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결정들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것을 말하지 말고, 토요일 밤에 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 밤에 전화를 했고, 그는 그의 예언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 날 일요일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이 영향을 끼쳤던 다른 가정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들이 모두 나왔을 때보다도 그 다음 주일날 더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셨습니다. 문제는 두 주간 안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가 관을 보긴 보았지만 얼굴을 잘못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는 한 지역 교회에 목사로 가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매우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전에 사역하던 목사가 비윤리적인 일을 저질러 경찰에 체포되어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그 교회에는 그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목사는 거기서 13년간을 섬겼고 그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였고, 교단의 감독이 나에게 그곳에 가서 섬기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사실 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당시 섬기고 있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세 사람의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그것으로 투표를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교단 감독에 대한 호의로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투표용지에 이름을 그저 올려놓기만 해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관참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정말로 가기를 원치 않았기에 아내에게, 만일 첫 번째 투표에 나를 만장일치로 뽑지 않는 한 그곳에 가지 않겠노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그 상황에 맞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번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나는 오, 아닌데, 라고 말했지만 이 성경 말씀은 모든 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요일 저녁에 이사회의 회장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스미스 목사님, 교회가 새로운 목사 문제에 대해 투표를 했고 그 결과는 첫 투표에 만장일치로 당신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주의 뜻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순종은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자주 실수를 합니다. 오, 나는 주께 순종하리라.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신다면,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순종은 당신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있기를 원하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위하여 택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더 나은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주님께서 나로 오고, 가고, 머무를 곳을 명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우리가 교회로부터의 초청을 받아들인 후에 한 여인이 사람들을 모아서는 현재 우리의 목사는 참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목사를 위해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불화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주일날부터 시작하기 전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전부터 이 불화를 조성했습니다. 그녀가 교회에 가려고 하던 수요일 밤에 그녀는 차에 치어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하게 다루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여 손을 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고린도에 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중 몇 사람으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시는 일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우리는 비난하는 것들을 훑어볼 것이다. 구약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것들은 두 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될 것이다.

2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금 너희에게 경고하고 있노라! 내가 다시 갈 때에는 죄 짓고 있는 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룰 것이다.

3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4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바울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용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입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 것이며,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6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바울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은 관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과 관계하며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실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전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창녀와 합한다면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을 너희가 그러한 관계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라. 그래서 바울은 진정으로 그들 자신을 조사해 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의 행위가 너희가 말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말하노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고 믿노라.

7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너희 마음에)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8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항상 위로가 됩니다. 진리는 고수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9 우리가 악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나는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노라. 나는 너희의 온전함을 구하노라.

10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러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그들을 세우는데 사용하고 그들을 파멸하는데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을 파멸하는 것이 아닌 세우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eremacasmus입니다. 이것은 자연계에 서서히 불붙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땅에 금속 한 조각을 놓고 며칠이 지나면 그곳에 작은 갈색 점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eremacasmus 라고 하며, 이 자연계에 서서히 타는 불이 점차적으로 그것을 모두 파괴합니다. 어디에나 eremacasmus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 전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역학의 두 번째 법입니다-eremacasmus.

우리는 강철을 달구는데 불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반영구적으로 만들려고 불로 그것을 어느 선까지 달굽니다. 불로 달굴 때 어느 것은 더 굳어져서 거의 반영구적이 되는 반면에 다른 것들은 불에 소모되어지거나 파괴되어집니다. 같은 불로 어떤 것들은 반영구적으로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다른 것들은 파괴되어지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왕 때에 (이사야 37장), 이사야가 그를 섬기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도시가 앗수르 군대에 의해 둘러 싸여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왕에게 하나님께서 앗수르인들을 유대인들의 손에 붙이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이 앗수르 진을 보았을 때 그들은 단지 죽은 시체들만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쳤습니다. 온 진에 단지 시체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시온에 있는 죄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여, 우리 가운데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로 보았고 하나님의 불이 앗수르 군대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죄인들과 위선자들의 마음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오, 하나님의 불이 한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할 수 있겠는가?

당신 삶 가운데,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이 영적으로 세우는 데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파괴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은사를 너희를 세우는데 사용하기를 원하며 너희가 파괴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것들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노라. 내가 거기에 도착할 때에 대결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11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온전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결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분열을 멈춰라) **평안할자어다.** (당파를 짓지 말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2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3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에리조나에 있었던 사람과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축도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이러한 경고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하고, 평강과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헌신되고 말기고, 세상의 것들로 떼문지 않고, 순결한 가운데 행하고, 거룩함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새롭게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고 드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